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2013년 하반기 뉴스레터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NEWSLETTER  
No. 11

환경대학원 비전, "GSES Initiative 2013"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 학교소식**
- 1 학술/연구/교류
  - 2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3 수업소개
  - 4 교수동정
  - 5 석·박사과정
  - 6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 동문소식**
- 7 동창회
  - 8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 9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 동정

2013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 모집안내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발행일 2013년 6월 30일 담당교수 이희연, 이유미, 조경진  
학과조교 문미라, 박윤미, 박주현, 오관교, 원세형 도시·환경최고위과정 조교 김 배 학생기자 김현정, 문제희, 양수연, Carlos Silva Roa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TEL | 02-880-5642 FAX | 02-886-7935 <http://gses.snu.ac.kr/>



환경대학원 비전, “GSES Initiative 2013”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학교소식	1 학술/연구/교류	6
	2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20
	3 수업소개	24
	4 교수동정	26
	5 석·박사 과정	29
	6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2
동문소식	7 동창회	34
	8 석·박사과정 동문동정	38
	9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동정	40

2013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 모집안내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 환경대학원 비전, “GSES Initiative 2013”

환경대학원 최막중 원장은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1일, 제30회 환경대학원 동창회 총회에서 환경대학원 비전 “GSES Initiative 2013”을 발표하였다. 발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40년간 환경대학원은 우리나라의 압축성장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40년은 도시화의 안정기로 국내 도시개발수요의 포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GSES Initiative 2013”이라는 비전을 통해 환경대학원은 과거 ‘공간을 만드는 리더’ 역할에서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 역할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



“GSES Initiative 2013”의 핵심은 ‘공간의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를 육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1) 융·복합, 2) Glocal, 3) 소통·협력의 세 가지 Mission을 설정하였다. 즉, 부문별 전문성(Sectoral Specialty)을 넘어 도시, 교통, 환경, 조경의 통합적 신지식을 창출하고, Global-Local Network 확대를 통해 다양한 Area-specific Solution 제시하며, 다주체간 협업을 위한 Platform 제공을 통해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Mission을 이행하기 위한 Agenda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적 차원에서 5 전공체제의 공동모집(도시계획, 교통, 환경, 조경+환경설계 전공 신설), 석·박사통합과정 신설 등의 ‘교육편제 혁신’과 Team Teaching(환경계획과 설계 등), 인턴학점 도입 등의 ‘융·복합 커리큘럼 개발’, 그리고 ‘교수진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다.

둘째, 연구적 차원에서 건강, 치유, 웰빙 등 사람문제에 대한 ‘선도적 융·복합 연구’와 통일 후 북한 도시·환경계획(통일연구소), 아시아 도시화와 주택문제(아시아연구소), 동북아 사막화와 환경오염 등의 ‘선도적 Glocal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

셋째, 사회봉사적 차원에서는 융·복합 개념에 기초한 최고위과정 혁신, Glocal Leadership 증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 Mayor’s Forum 운영, 세종시 중앙공무원 야간 교육 과정, ODA 연계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상 중이다.

이외에도 교수 및 동문들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Agenda 개발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환경대학원에 위탁형식으로 기부되던 발전기금을 2013년부터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Agenda 별로 항목별 지정하여 다양한 Agenda의 개발과 실행 및 각각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오는 10월 23일(수)~25일(금)에 기념행사를 준비 중이다. 주제는 “생명과 삶의 지식공동체, 서울대 환경대학원 (1973-2013) - Sustainable Life, Sustainable City”로 정했다. 이를 위해 ‘40주년 행사 기획위원회’(위원장: 전상인/ 위원: 조경진, 윤순진, 장수은 교수)가 구성되었으며, 최막중 환경대학원장과 이완영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10여 명 내외의 ‘40주년 행사 조직위원회’가 곧 구성될 예정이다.

40주년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0월 23일(수) 오후에는 “관악주인과 함께”라는 행사가 열릴 계획으로, 관악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환경대학원 교수들이 ‘1일 교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24일(목) 오전에는 “4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에 맞춰 테이프 커팅이 있고, 오후에는 “SNU Campus Plan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10월 25일(금) 오전에는 “기념식수”와 “환경대학원 40주년 기념자료 출판기념회”가 마련되어있다. 25일(금) 오후에는 개원 40주년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국제학술대회” 및 “동문 홈커밍 행사”가 열리게 된다. 홈커밍 행사는 환경대학원 입학 시점을 기준(석사과정, 박사과정, 고위과정)으로 20년 및 40년을 맞이하는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모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 1973년 및 1993년 입학한 동문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일자	오전	오후
10월 23일 (수)	-	관악주인과 함께
10월 24일 (목)	40주년 기념조형물 테이프 커팅	SNU Campus Plan 심포지엄
10월 25일 (금)	기념식수 / 40주년 기념책자 출판기념회	국제학술대회 / 동문 홈커밍 행사

## 학교 소식

1

### 학술/연구/교류

#### 제2회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가이젠하임대학 조경학과 국제교류공동워크숍



2013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와 가이젠하임 대학교(Hochschule GEISENHEIM Univ.) 조경학과가 공동주최한 두 번째 국제교류공동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 국제교류는 2011년 두 학교의 국제학술교류협력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12년 가이젠하임 대학교에서의 첫 번째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갖는 교류이다.

워크숍에는 환경대학원 교수 2명(조경진 교수, 이유미 교수), 조교 2명(원세형 조교, 양희은 스태프)과 14명의 학생(간절익, 김민경, 김상민, 김지훈, 김현정, 문제희, 신수경, 안지수, 안태홍, 유천운, 육은정, 이슬, 이진우, 카를로스 실바)이 참여했으며, 가이젠하임 대학에서는 교수 2명과 학생 13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2013 워크숍은 2012년 첫 번째 워크숍 이후 지속해서 두 학교 간의 교류를 이어온 결과이며, 2012년 두 학교 학생들이 진행했던 디자인 결과물이 실제로 시공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가이젠하임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워크숍에서는 6개의 조가 4박 5일간 2013년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참여정원 사이트에 설치될 정원을 디자인하였으며, 우수작품으로 독일정원 "Get the Kneipp Feeling"과 현대정원 "Garden of Wishes"가 선정된 바 있다. 이후 10개월여간 독일정원은 가이젠하임 대학교 측에서, 현대정원은 환경대학원 측에서 계획안을 바탕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 11월부터 정원조경에서 두 정원을 시공하였다.

2013년 워크숍의 첫 번째 일정으로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이트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실제 시공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다. 4월 8일에는 박람회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견학한 후 4월 9일에 정원 시공의 마무리 작업에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특히 참여정원의 콘셉트로 디자인된 "Garden of Wishes" 정원 구조물에 두 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의 소원을 적은 리본 400여 개를 묶는 작업과 식재작업을 병행하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 워크숍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한 정원이 실제로 시공된 것에 대하여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독일정원의 크나이프 테라피에 참여하는 모습과 현대정원의 리본이 훑날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데 여념이 없었다.

4월 10일부터는 환경대학원 건물의 중정을 대상지로 하여 디자인샤렛을 진행하였다. 이날 오전에 이윰미 교수의 환경대학원 중정 사이트에 대한 설명과 Helget 교수의 강의를 받았으며 오후부터 학생들의 디자인작업이 시작되어 4월 11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4월 11일 저녁에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조별로 작업내용에 대한 발표와 평가가 이루어졌다. 대상지에 대한 이해가 깊은 한국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새로운 공간을 접하는 독일 학생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더해져 환경대학원 중정 공간에 대한 참신한 디자인 안들이 소개되었다. 이날 평가에는 워크숍 교수진 4명과 환경대학원 이석정 교수, 라이브스케이프 유승종 소장이 참여하였다. 평가자들은 각 학교 학생들이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협업하여 팀워크가 돋보이는 디자인 안을 도출하였다는 점과 짧은 시간에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 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평가자들은 모든 조의 발표가 끝난 후 두 팀의 우승 작품을 선정하였다.

우수팀으로는 팀명 'Mikado' 조의 "Moving Garden"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팀으로는 팀명 'Illusionist' 조의 "Anamorphic Courtyard"가 선정되었다. 우수작품 "Moving Garden"은 빛의 각도로 형성되는 라인레일을 따라 설치된 스틱을 이동하여 이용자의 이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콘셉트를 담고 있다. 최우수팀 "Anamorphic Courtyard"는 대상지인 중정 공간의 성격이 '복도를 통해 바라보는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페이빙을 이용하여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중정 공간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정적인 성격의 중정에 층별, 공간별 뷰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4월 12일에는 선유도 공원, 그리너스 카페, 광화문광장, 청계천, 인사동 등 서울의 주요 공원과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을 진행했다. 모든 워크숍 일정이 마무리된 이날 밤에는 두 학교의 모든 참여자가 모여 송별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학교의 교수진은 2012년과 2013년 두 번의 워크숍에 이어 앞으로도 두 학교가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갈 것을 약속하였으며, 6박 7일이라는 기간 동안 깊은 소통을 나누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던 교수와 학생들은 헤어짐의 아쉬움을 남기면서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환경대학원, 치바대, 효고대 합동세미나



지난 3월 25일 환경대학원에서 서울대학교와 국립치바대학(Chiba University), 효고현립대학(University of Hyogo)의 조경계획 관련 연구실 간의 합동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조경계획 분야에 관한 한·일 학생들의 상호 이해를 돕고 양국 학생들의 교류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환경대학원에서는 환경조경학과 성종상 부원장, 조경진 교수, 손용훈 교수를 비롯하여 환경조경학과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석하였으며, 치바대학 원예학부에서는 Ye, Kung-rock 교수(국제교류담당), Furuya, Katsunori 교수(풍경계획연구실), Saito Yukihiro(지역계획연구실), 효고현립대학 아와지캠퍼스에서는 Hirata, Fujio 교수(부학장)와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The Korea-Japan Student Seminar on Landscape Planning Studies"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크게 세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 성종상 교수의 환영사에 이어, 치바대학교 Ye, Kyung-rock 교수와 효고대학교 Hirata, Fugio 교수, 환경대학원의 손용훈 교수가 각 학교의 조경학 학위과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경대학원 조경진 교수가 "Green movement in Seoul"이라는 주제로, 치바대학 Saito, Yukihiro 교수가 "Green Tourism and Rural Spatial Management- The Conservation Method for Farmlands and Common Space"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조경진 교수는 서울을 통해 본 한국의 근대 조경사를 돌아보며 최근 용산공원 등 한국 조경의 경향 및 비전을 소개하였다. 일본 교수와 학생들은 근대 조경사 및 최근 한국 조경의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한국 조경의 급속한 성장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Saito 교수는 녹색 관광을 통한 농촌지역의 공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세 대학의 석·박사 과정학생들이 총 8개의 연구주제를 발표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는 허윤서(석사과정) 학생이 "Major challenges of Eco-bridges in Seoul through the using state survey -Targeted at Four Eco-bridges in Donjak-gu and Gwanak-gu-"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환경조경학과 민경찬(석사과정) 학생은 "Study on Classification of Urban Agriculture Lands in Gwanak-gu and Its Application"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일본의 학생들은 국가 간 경관인식의 차이, 도시농업, 녹지계획, 생태관광 등의 조경계획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있었다. 본 행사는 환경대학원 학생들에게 일본 조경계획 연구의 경향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세미나 시작 전인 오전에는 서울대학교 투어를 실시하였다. 환경대학원 손용훈 교수는 서울대학교 미술관과 박물관을 안내하였고 성종상 교수는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종료 후에는 서로 간의 기념품을 교환하며 만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합동세미나에서 향후 대학 간 교류를 활발히 하는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2014년에도 행사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본 행사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교류 세미나로써 한·일 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학문적 나눔뿐만 아니라 향후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제18회 교통연구세미나

지난 4월 12일 금요일 오후, '제18회 교통연구세미나'가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개최되었다. 교통연구세미나는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통관리전공 및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주최하고 대한교통학회·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후원하며, 매년 2회씩 개최됐다. 지난 17회 동안 교통연구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은 총 177편에 달한다.

제18회 교통연구세미나는 본 대학원 김성수 교수의 개회사와 국토연구원 임영태 박사(계획 22회, 교통동문회 부회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교통관리전공 석·박사과정 재학생의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국토연구원 임영태 박사(계획 22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백남철 박사(계획 24회), 서울연구원 김원호 박사(계획 28회), 환경계획연구소 조은경 박사(계획 32회)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여 발표논문에 관한 토론과 심사를 진행하였다.

최우수논문상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을 신도시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도시의 베이스라인 배출량과 다양한 교통정책별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산정한 박경욱(박사과정)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효과 추정"이 선정되었다. 우수논문상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운전행태와 운전시간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김다해(석사과정)의 "시내버스 운전자의 누적 운행부하에 따른 운전행태 특성"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동문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본 대학원 이영인 교수의 폐회사로 제18회 교통연구세미나가 마무리되었다.

##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교통관리전공에서는 매월 1회씩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은 교통·물류 분야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을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연구 분야에 관해서 토론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2013년 1학기에는 총 3회(제25차~제27차)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으며, 교통부에서 경제학적 분석의 중요성, 교통부문의 미래와 방향, 수요지향형 철도시스템 구축에 대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 제25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3월 25일 월요일, “교통경제와 교통학: 교통부문 경제학적 분석의 중요성 및 사례”라는 주제로 '제25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성원 박사(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기후변화연구실)의 강연발표와 본 대학원 김성수 교수, 국토연구원 임영태 박사의 토론이 있었다. 이성원 박사는 교통문제 분석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법 및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계량적 분석의 필요성,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교통수요모형의 결과를 토대로 개인승용차 수요관리와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에 관한 정책적 제언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성원 박사는 경제학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교통수요분석 모형이 경제학적 분석방법론에 기초하므로, 교통문제 해결에 보다 비용 효과적(Cost-Effective)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제학 이론은 방향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어떤 정책수단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량적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교통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실증 분석 사례를 통하여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영태 박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택시법, 녹색물류요금 부과 등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제적 접근방법이 필요할지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하였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계획을 예로 들어 한쪽으로 편향된 계획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수 교수는 SP 조사의 실험계획 시대안 Level의 급간을 주요 정책요인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차내 혼잡을 3가지 형태(비혼잡/중간혼잡/매우혼잡)로 구분하였는데, 혼잡을 처럼 더욱 명확한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설문자의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안하였다.



### 제26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4월 12일 월요일, “서울 교통의 미래와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6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이 개최되었다. 이날 콜로키움에는 주제 발표를 맡은 고준호 박사(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의 강연발표와 본 대학원의 윤순진 교수, 국토연구원 김준기 박사의 토론이 있었다. 고준호 박사는 미래 서울 교통 영향요인, 이슈와 해외정책 동향, 정책방향 순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고준호 박사는 미래 서울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예상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미래연구기관들의 각종 미래전망 보고서 및 국내 법제도·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광역화 및 도시화로 인한 장거리 통행수요 증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노인통행비중 증가, 교통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교통부문 경쟁력 약화 등 총 11개의 교통 관련 메가트렌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어 미래의 교통 관련 메가트렌드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슈와 해외정책 동향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 교통미래상에 대응하는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고효율·고효과 정책의 우선 추진, 극심한 혼잡지역의 해소, 고배출군의 행태변화 유도, 그리고 사용자 부담원칙의 합리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윤순진 교수는 최근 들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향후 교통법규 및 교통문화적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변화를 꾀하는 노력이 수반될 때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어 김준기 박사는 장래예측 시 단순히 통계적 증·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나누며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콜로키움을 통하여 재학생과 전문가들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제27차 지속가능 교통·물류 콜로키움

5월 6일 월요일, “수요지향형 철도교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FTOS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이강미 선임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의 발표와 이장호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구혁서 부장(한국철도공사)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강미 선임연구원은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사례인 수도권 1, 2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같이 국내의 도시개발 사업은 대부분 거점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거리 통근통행의 증가 및 통근통행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지역 간 연계성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광역철도망이 지속해서 확충되고 있지만, 인프라에 대한 수혜지역과 비수혜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운영효율성 제고 및 운영체계 변경을 통한 철도교통의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 수요지향형 철도교통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요지향형 철도교통시스템에 관한 초기수준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럽(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및 일본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다수 노선이 운영 중이며, 주요 관련 기술 중 약 80% 이상을 일본이 보유하고 있어 국내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이어 이장호 교수는 수요지향형 철도교통시스템은 신규 노선에만 적용이 가능한 기술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운영 효율성 측면 보다는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혁서 부장은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통신시스템, 노선을 이용하는 충분한 교통수요, 그리고 적정규모의 인프라구축 세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수요지향형 철도교통시스템의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 서울환경포럼 2013년 1차 정책포럼



지난 4월 12일 금요일 저녁, 환경관리 동문이 주축인 서울환경포럼(회장 전의찬, 세종대 대학원장)에서 주최하는 “서울환경포럼 2013년 1차 정책포럼”이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서울환경포럼 회원들, 교수, 재학생이 청중으로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의 주제는 “새 정부의 환경정책”이었다. 서울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이창우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초청 연사인 백규석 환경부 정책실장의 발표에 이어 정종관 환경영향평가학회장, 박수택 SBS 기자,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가 차례로 지정토론을 한 후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백규석 환경부 정책실장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행복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며, 소통과 협업으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환경복지 실현하겠다는 내용의 새 정부의 환경정책을 방향을 발표하였다. 지정토론자인 정종관 환경영향평가학회장은 신재생에너지와 부처 간 협업,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환경재정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SBS 박수택 기사는 지난 5년간의 환경부의 태도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며 정권과 관계없이 환경부가 일관된 철학과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홍중호 교수는 앞으로의 5년은 신뢰성 회복에 목적을 두고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해 녹색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규석 환경부 정책실장은 정종관 환경영향평가학회장, 박수택 SBS 기자, 홍중호 교수의 지정토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욕구를 환경부의 정책 안에 녹여내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며 녹색성장에서 좋았던 정책들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청중으로 참석한 서울환경포럼 회원들과 환경대학원 교수와 재학생이 백규석 환경부 정책실장에게 질의·응답을 하며 새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 독일 칼스루에(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체결



이석정 교수(환경계획학과)와 김광중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올해 1월부터 한국과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연구의 주제는 “자투리 공간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기회”이며, 4년에 걸친 연구 프로젝트이다. 연구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처음 2년 동안의 연구는 학술적인 차원이며 나머지 2년은 학술적인 연구를 토대로 기존의 도시공간에 적용해 보는 단계이다. 양국의 정부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학계뿐 아니라 연구소 및 산업체 간에 지속적이며 긴밀한 교류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3월 20일 독일 연구팀인 칼스루에 대학(KIT) 건축과의 고테 교수(Kerstin Gothe)와 데호 조교수(Philipp Dechow)가 환경대학원을 방문하여 일주일 동안 체류하였다. 이들은 환경대학원의 연구팀과 함께 서울시의 그린에너지 부서를 방문하고, 서울의 연구 사례지역을 답사하였다. 한편 환경대학원의 이석정 교수와 황세원, 이동하, 이상아, 진현조 연구팀원은 7월 19일부터 2주간 독일을 방문하여 현지의 프라운 호퍼(Fraunhofer Institute)연구소의 연구팀 및 관련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사례지역을 심도 있게 탐방조사 할 계획이다.

이번 독일 연구팀의 방문은 양 대학 간에 MOU를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칼스루에 대학의 연구팀과 환경대학원의 최막중 원장 그리고 이석정 교수가 만나는 자리에서 언급된 아이디어로, 현재 대학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MOU 체결을 통하여 양 학교의 학생과 교수진의 교류 시 행정의 신속화·간소화 및 경우에 따라서 독일 정부의 학술교류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기대된다.



## 싱가포르 국립대학 환경대학원 방문

지난 5월 21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부동산학과(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Department of Real Estate) 4학년 학부생 23명과 교수 3명(Ong Seow Eng, Lee Kwan Ok, Chow Yuen Leng)이 환경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싱가포르 국립대에서 학부 4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해외 도시 한 곳을 선정하여 방문하는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올해는 서울을 선택하여 영종도, 서울시청, 청계천을 답사하였다.

환경계획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김경민 교수(환경계획학과)의 특강은 "Issues in Korea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rkets"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형도시개발 프로젝트'(Megaprojects, planned in the mid 2000s), '뉴타운'(Town-in-Town Developments, the early 2000s~the late 2000s), '보금자리주택'(Affordable Housing built in Greenbelts, the late 2000s~the early 2010s)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강을 통해 싱가포르 학생들은 생소했던 한국 부동산시장과 주택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부동산학과 학생들의 환경대학원 방문은 학문적 교류뿐만 아니라 향후의 협력관계를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말레이시아 공과대학 환경대학원 방문

지난 4월 23일 한국의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견학하고, 환경대학원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말레이시아의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이하 UTM) 대학원생 20명이 우리 대학원을 방문하였다. 원장님의 인사와 환경대학원 소개를 들은 후 환경대학원 옥상정원을 둘러보았으며 홍종호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안내로 에너지 절약적이며 환경친화적으로 건설된 서울대 공과대학(33동)을 둘러보았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적용된 건물로 옥상에는 태양광 시설, 전기 저장용 배터리시설이 있으며, 건물 옆면에는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BIPH)인 태양광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실내조명으로는 LED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UTM 학생들은 한국의 친환경건축물 선진기술을 접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고주석 Wageningen University 조경학과 교수 특강



네덜란드 Wageningen Univ. 조경학과 교수이자 Oikos Design을 운영하고 있는 고주석 교수의 초청 특별강연이 2013년 3월 11일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열렸다. "Unified Field Aesthetics for Landscape"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특강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조경미학의 경향과 한국을 포함한 동양조경미학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주석 교수는 유럽은 오랜 역사와 성숙한 도시문화, 높은 자연 밀도를 바탕으로 '보여주기' 식의 화려한 조경보다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everyday) 중심'의 조경이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Landscape is Infrastructure'라는 말처럼 경관에 초점을 둔 조경이 아닌, 국토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구조적 차원으로 조경에 접근한다고 하였다. 조경미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화권마다 다른 것은 지역의 사회구조,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인데, 서로 다른 미학을 배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무조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기존의 자연, 사회, 경제, 정치와 서로 연계를 짓고 이와 더불어 조경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주석 교수는 장의 미학(field aesthetic)을 통하여 동양의 미학과 서양의 미학이 평행선상에 있지만 결코 통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예로 일본의 료안지를 들었는데, 료안지는 애초에 '미학적 관점에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므로 서양적 관점 혹은 미술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보다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명상과 같은 방법을 통한 철학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氣)라는 개념 또한 동양에서만 중시되는 것으로 형태나 디자인을 바꾸는 것보다 어디에 위치하는지(positioning in field)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생화꽃과 조화꽃이 형태는 같지만 내재된 에너지가 다른 것처럼 동양에서는 형태(shape)가 아닌 형세(energy)를 중시하는 기(氣)의 미학이 존재한다고 부연설명 하였다. 더 나아가 고 교수는 동양의 미학은 형태미학에서 생태미학으로, 생태미학에서 기(氣)미학으로 점차 그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풀어 차별화하였다. 고주석 교수의 특강을 통해 아직도 외현(外現)의 장식에만 치중하거나 서양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우리나라 조경의 비전에 새로운 면을 보여주었으며, 학생들의 열띤 참여를 통해 조경의 밝은 앞날을 기대하게 하는 자리였다.



## 아네모네 Oikos Design 대표의 특강

지난 3월 14일, "Venturing Design / Art Outside-In"을 주제로 아네모네 Oikos Design 대표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강의는 'Who am I'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I love, I design'으로 이어졌으며 아네모네 대표는 이러한 동사적 표현들이 결국 자신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독일, 오스트리아, 브라질,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자연적 요소와 예술가의 회화 등 인상적인 요소를 설명하며,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관객에게 체험적 감흥을 줄 수도 있고 무의미한 것으로 방치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구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던 서울의 아파트와 초고층 사진을 보여주며 '모던'이라는 단어로 형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여,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가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과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구인으로서 한국인들과 협업하며 느낀 문화적 차이를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때로는 부정적으로 느낄 때도 있다고 말하였다. 실무뿐만 아니라 일상의 경험담 등을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다는 것이 친밀하였고,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의 옛것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신선하였다. 민화를 차용한 "Tiger and Dragon"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와 호주 등 다른 자연 풍경과 한국적 에너지를 어떻게 결합시킬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었다. 신도림역 등에 설치한 영상이 시간에 따라 다른 색(낮:흰색, 밤:청색)으로 로비 천장과 에스컬레이터 사면에 꽃을 비추는 것은 인공과 자연물을 결합시킨 예다. 'street tree'로 동시대적인 자연을 형상화하였고, 본연(origin)으로부터 응용해 나아가는 'Go back to fractalizing your city'를 주장하였다. "Sacred Presence, country in city" 타이틀의 용산공원 프로젝트를 마지막으로 다시금 나(이)는 누구이고 무엇을 꿈꾸는지 되물으며 "Be a dream weaver!"로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 University of Delaware의 John Byrne 교수 특강



지난 6월 11일 화요일 오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의 John Byrne 교수가 "A Post-Modern Climate: The Merging Agendas of Sustainability, Justice and Bottom-up Governance"를 주제로 한 강연이 환경대학원 205호에서 재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 동안 열렸다. John Byrne 교수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학자로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소장이자 재생가능에너지와 환경 재단 대표이고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지도교수이다.

John Byrne 교수는 한국은 긍정적인 근대 모형(modern model)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전력공급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전기요금을 줄일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는 정부 기관의 지원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John Byrne 교수에 의하면, 에너지 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정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환경 비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싼 에너지 찾기에만 집중하였으나 지금은 더 많은 환경 비용을 내고 있고 에너지 역시 비싸졌다.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철저히 대비했던 국가가 일본이었으나 현재 일본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원자력 정책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았다. 근대 모형(modern model)은 에너지와 관련한 위험을 계속 키웠으며 이 위험을 어떻게 공유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 당장 큰 변화나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다가오는 위험을 절대 줄일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 황기원 명예교수 『자벌레의 세상보기』 출판기념회



환경조경학과 황기원 명예교수는 건축과 환경에 대한 독특한 철학과 생각을 바탕으로 『자벌레의 세상보기』를 출간하고 5월 25일 환경대학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52편의 짧은 글로 이뤄진 『자벌레의 세상보기』는 땅과 집, 건축과 환경에 관한 생각들을 서양에서 '인치웜(inchworm)'으로 불리는 자벌레의 눈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점과 선, 면과 형태라는 기하학적 무늬들이 지닌 건축적 의미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 위의 건축들과 무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삶터에 알맞은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땅 위에 들어선 집들은 어떠한 환경적·생태적 근거를 가졌는지 기술하였다.

인간의 행복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자연환경과 공존하며 살아가려는 노력에 있음을 역설하며 도시화에 힘입어 시작된 '머물며 사는 삶'이 아닌 '노니는 삶'에서 비로소 공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미래의 건축과 환경에서의 디자인은 이 '노니는 삶'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웰빙 건축임을 제시하였다.

(자벌레의 세상보기/ 황기원 지음/ 도서출판 학교재 /392쪽)



##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제 학술활동

환경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국제학술지와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논문발표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 학술활동에 대한 학교의 일부 비용 지원에 힘입은 결과이며, 학생들의 전공분야에 대한 문제인식 및 연구노의가 점차 국제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논문이 세계 학계의 지식 축적 과정에 보다 빈번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계획학과 주유형(박사수료)과 이희연 교수(환경계획학과)는 2013년 6월 25일~2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ASMDA (Stochastic Modeling Techniques and Data Analysis International Conference) & Demographic Analysis and Research International Workshop에서 "Spatial Var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rtality Rates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in South Korea"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공간적으로 이질성을 보이는 우리나라 구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사망률의 지역 간 변이에 영향을 주는 근린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추정한 것으로, 국지적 특성에 따라 회귀계수를 상이하게 추정하는 지리가중회귀모형을 이용함으로써 사망력에 영향을 주는 근린환경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공간적 이질성을 보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협동과정 조경학 정승규(박사수료)와 박종화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3년 6월 불가리아 바르나에서 개최된 SGEM(International Multidisciplinary Scientific GeoConference)에서 "Riparian Landcover Classification Using High Resolution Imagery and OOC Technique"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전을 위하여 원격탐사와 라이다(LiDAR)를 이용하여 야생동물의 서식기반인 수변지역의 식생과 지형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류할 방법을 제시하였다. Pixel-Based 방법과 객체지향기법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만을 이용하여 분류하는 것보다 달리, 다양한 환경변수와 3차원 정보를 이용한 객체지향기법이 야생동물의 서식지 분류에 더욱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 석·박사과정학생 수상

### 2013년 도코모모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입상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청주시청이 후원한 제10회 도코모모코리아 디자인 공모전에서 강문석·박준성·안근철(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이 특선을 수상하였다. '모더니즘의 동시대성-청주연초제조창의 문화적 재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는 20세기 중반에서 21세기 초까지 청주의 경제를 이끄는 중요 산업시설이었던 청주연초제조창이 대상지였다. 산업이 쇠락함에 따라 사용이 중지된 청주연초제조창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시설로써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폭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모의 주제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에 대하여"라는 작품명에 걸맞게 완성된 조감도를 제작하고 적용 가능한 활용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보다, 청주연초제조창이라는 대상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을 대하는 관점이 건물의 외형이나 배치와 같은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부의 작은 것들에 대한 세밀한 시선과 애정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작은 것들의 의미를 읽어내고 각 요소 간의 관계를 찾아내어 표현하는 작업이 물리적 개입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적용보다, 현재 청주연초제조창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선했음을 주었다.

## 제1회 전국 학생 가드닝 콘테스트



고양시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최한 '제1회 전국 학생 가드닝 콘테스트'에 환경조경학과 재학생 2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안태홍·간절익(환경조경학과) 학생 팀이 "QR CODE GARDEN"이라는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하였고 조미진·노초원·김현지 학생(환경조경학과)은 "Sliding Puzzle"이라는 작품으로 디자인부문 동상을 수상하였다.

"QR CODE GARDEN" 팀은 시공비 200만 원을 지원받아 직접 시공하여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관람객으로부터 스마트폰과 정원을 합친 재미있는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Sliding Puzzle"은 각각의 퍼즐 조각을 밀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슬라이드 퍼즐처럼 각각의 컨테이너 포트를 움직여 경관을 만들어가는 '내가 만드는 정원'이 주요 콘셉트다. 공간의 규모에 따라 확장과 축소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바퀴로 이동이 가능한 각 컨테이너는 계절별, 상황별로 새로운 정원의 형태를 만들어 경관을 디자인하고 원하는 위치에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계획연구소 활동

### 2013년 전반기 국내 학술대회, “평양, ‘도시’로 읽다”



지난 5월 29일(수) 환경계획연구소는 연구처 후원 및 정림건축문화재단 공동기획으로 “평양, ‘도시’로 읽다”라는 주제로 국내 학술대회를 82동 306호에서 개최하였다. 전상인 소장의 개회사와 최막중 환경대학원장의 축사에 이어 이희연 환경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평양의 도시계획,” “북한의 수도계획,” “평양의 도시문화,” “평양의 도시교통”의 4가지 주제가 발표되었고 각각 지정 토론과 플로어에서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석정 교수, 장수은 교수(이상 환경계획학과), 김세훈 교수(환경조경학과), 김병로 통일평화연구원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가하였다.



첫 번째 임동우 미국 PRAUD 소장의 **“평양의 도시계획”** 발표에서 임 소장은 현재의 평양이 어떠한 도시적 특성이 있고 이러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보여주었다. 사회주의 도시개발 이론은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과 많은 공유점이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도시개발이론이 ‘도시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임 소장은 또한 평양의 과거와 현재를 담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변화할 수 있는 점진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재 사회주의 도시로서의 모습을 비교적 조직적으로 잘 간직하고 있는 평양의 도시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함도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사회주의 도시적 공간에서 찾음으로써 도시가 인위적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변화에 대응해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발표를 통해 임동우 소장은 앞으로 평양 및 북한의 도시들이 어떠한 전략을 갖고 새로운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짐과 동시에 평양의 잠재성 있는 도시 공간들, 즉 사회주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있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계획함으로써 성장과 변화의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두 번째 조은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영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의 “북한의 수도계획” 발표에서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평양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데에 수도계획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근대국가에서 수도가 차지하는 위상은 일반적으로 막강하지만, 수도 평양은 더욱더 그러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1970년대 이후 수도 평양의 도시 계획에 ‘주체 건축론’을 강조한 점과, 1980년대 이후 도시건설의 양적 확충과 함께 대규모 국가의례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화려해진 점 등으로 보아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수도 평양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난의 지속과 특히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의 가중은 북한으로 하여금 극장국가적 성격을 보다 크게 부각하게 하였으며 2002년에 시작된 아리랑 공연, 비정기적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집체 시위의 증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이들의 빈번한 대외 노출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였다. 현재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은 유혹 통치의 미명 하에 극장국가의 면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양은 핵심적 무대공간으로서 특별히 치장되고 관리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또한 북한 전역의 심각한 피폐화와 무관하게 수도계획에 몰두한다는 점 자체가 목하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를 방증하는지도 모른다고 분석하였다.



북한과 관련된 연구들이 적지 않게 축적되었지만, 여전히 북한 관련 연구는 주로 정치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접근하는 관점도 거시적이고 체제 중심적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과정이나 경제 현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체제를 구성하는 인민들에 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이우영 교수는 평양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의 공간적, 문화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평양에 대한 이해를 넘어 북한체제의 특징과 북한주민의 일상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북한의 변화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양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크다는 점은 평양시민들의 일상의 변화가 현재의 권력구조나 체제에 대한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순기능적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모순적 결합 상태가 장기적으로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우영 교수는 평양의 일상 변화가 세대 간, 집단 간 차별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평양시 내에서도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집단이 생겨나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가 고착되는 경우, 혹은 더욱 급진적인 외부 문화가 유입되고 확산되는 경우 사회적 균열로 발전할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남한사회를 포함한 많은 제3세계 사회에서 경험하였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당(국가)이 장악하였던 체제에서 개인주의화 그리고 사상적 통합기제의 약화는 변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평양은 자부심의 도시이며 희망의 도시이고 김일성과 김정일은 평양시 건설에 대한 수많은 교시를 통해 평양의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교통 부문도 당면한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평양의 도시교통은 현재 만성적인 전력난과 운송수단의 노후화, 전시행정적인 도시계획과 교통시스템과의 연계성 저하로 정시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을 상실한 매우 심각한 증증을 앓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평양이라는 도시에서의 교통은 주민들의 편의증진이라는 논리보다 국방의 논리, 소위 혁명의 수도로서의 정치적 논리가 우선되고 있다. 평양 도시교통의 재건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도시교통시설 표준화 및 공동화 작업이 절실하고 북한의 도시교통 분석을 위한 우리의 학제간 협동연구 필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학술대회 내용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동영상으로도 제작하였는데, 7월 초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snu.ac.kr/index.ax)를 통해 VOD 콘텐츠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다.

## 환경계획연구소 수요 집담회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수요 집담회를 신설하였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진행되는 수요 집담회는 환경대학원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나 이슈들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이루어지는 모임이다.

5월 22일 수요 집담회에서는 최명철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 공동주임 교수(단우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가 “청와대 집·터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제 자료는 환경계획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또한 7월 3일 수요집담회에서는 “보행 중심의 마을 만들기: 서울, 교토, 북경, 피렌체의 중심 시가지 사례비교”라는 제목으로 박동욱 박사(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교토대 공학박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 환경계획연구소 “Field Walk” 프로그램



**환경계획연구소  
Field Walk**

장 소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일 시 | 2013년 7월 1일 (월요일)  
자 격 | 환경대학원 석사 및 박사 재학생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교수와 학생들의 현장답사를 지원하는 “Field Walk”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7월 1일에는 첫 번째 행사로 ‘201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답사할 예정이다. 야외 답사 시 강의와 안내는 성종상 환경조경학과 교수 주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환경계획연구소 'Summer Academy'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2013 Summer Academy**

**일시** | 7월 22일(월) 2-5PM **질적 방법론** 박상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7월 23일(화) 1-3PM **논문 작성법** 장수은 (환경대학원 교수)  
 7월 23일(화) 3-5PM **글쓰기** 김형국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7월 24일(수) 2-5PM **도시 사진** 주상연 (사진작가)  
 7월 25일(목) 2-5PM **고급 통계분석** 김경민 (환경대학원 교수)

**장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302동)  
 \* 수강 신청 및 문의: 환경계획연구소 홈페이지 (<http://gses.snu.ac.kr>)

환경계획연구소에서는 여름방학 동안 환경대학원생 및 기타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Summer Academy"를 개설한다. 개설강좌는 질적 방법론/ 논문작성법/ 글쓰기/ 도시사진/ 고급통계분석의 5개 강좌이다.

강좌명과 강의 일정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일정	강좌명	강사
7월 22일(월) 2-5 pm	질적 방법론	박상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7월 23일(화) 1-3 pm	논문작성법	장수은 (환경대학원 교수)
7월 23일(화) 3-5 pm	글쓰기	김형국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7월 24일(수) 2-5 pm	도시사진	주상연 (사진작가)
7월 25일(목) 2-5 pm	고급통계분석	김경민 (환경대학원 교수)

수강신청 기간은 2013. 06. 24(월) ~ 07. 12.(금)까지이며 이메일([joopark79@snu.ac.kr](mailto:joopark79@snu.ac.kr))로 접수를 받는다. 수강신청서는 환경대학원 홈페이지 이벤트란(<http://gses.snu.ac.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수업소개

### 환경계획·설계

2013학년도 1학기 “환경계획·설계” 수업에서는 “서울대 관악 캠퍼스”를 대상지로 하여 학생들의 팀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다. 서울대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서울대(Sustainable SNU)”를 선언한 지 올해로 5년이 되었다. 이번 2학기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환경대학원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서울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주최할 계획이며 이 행사에 학생들이 직접 발굴한 문제들과 발로 뛰며 제시한 해결방안을 함께 제안하게 된다. 대상지는 단지 관악 캠퍼스만을 대상으로 좁혀서 접근하기보다, 캠퍼스가 놓여 있는 관악구와 관악산으로 대상지로 넓혀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수업 초반 두 주에 걸쳐 홍종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김경민, 이유미, 장수은 교수가 참여해서 진행 중인 “서울대학교 캠퍼스 지속가능성 연구”란 연구과제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농생대 정옥주 교수와 교통연구원의 고준호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생산적인 토론을 해 주었고, 수강생들 또한 한 학기 팀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사전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학기에는 모두 78명의 학생들이 12개 조로 나누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각 조는 팀 프로젝트의 주제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아이디어를 나누고 현장을 함께 답사하면서 스스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갔다. 이 과정은 수업시간을 통해 연구계획 발표와 중간발표, 최종발표를 통해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 공유할 수 있었다. 교수들은 발표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접근의 필요성과 중요성, 학제 간 접근의 방법들을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익힐 수 있었다.

학생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캠퍼스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더 자주 답사를 하며 애착을 갖고 문제의식을 도출하여 더욱 현실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조별 연구성과를 최종 발표하였고 교수들과 학생들의 공동 평가를 통해 3개의 우수팀이 선정되어 시상하였다.

최우수상은 **"RE-Project: You wanna recycle?"**을 주제로 한 5조(김대수, 문선용, 신하영, 육은정, 이유민, 최현지, 카를로스 실바/ 지도: 이유미 교수)가 수상하였다. 서울대 캠퍼스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통에 간단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쓰레기 분리 배출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10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과 본부 담당과 직원들과 인터뷰도 진행하였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제대로 분리배출을 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와 시각적으로 분리배출을 어디에 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했을 경우 분리배출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과 그렇지 않은 물품들을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확인하여 분리배출률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스티커 부착으로 학내 쓰레기 분리배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방안을 현장감과 현실성 높게 모색했다는 점이 돋보이는 수작이었다.

우수상은 **"맹규, 관악산!"**이란 제목으로 관악산과 서울대와의 연계, 관악산을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연결하고 확장시킨 6조(문제희, 소윤상, 심영선, 안혜린, 유혜림, 이아형, 조주은/ 지도: 손용훈 교수)에게 돌아갔다. 6조는 설문조사를 통해 서울대 구성원들의 심리상태를 살펴본 후 숲이 주는 정서안정 효과를 확인하고 숲을 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숲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러 차례의 답사를 통해 산책과 등반을 위한 산책로를 개발하고 이를 지도로 나타냈으며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숲 속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실천해보기도 하였다. 서울대가 단지 관악산이란 곳에 얽혀 있지만 한 것이 아니라 관악산 숲과 서울대가 어떻게 서로 보호하고 치유하며 구성원들의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발로 뛰는 답사를 통해 찾아낸 노력이 진하게 묻어나는 발표였다.

장려상은 5조(남소진, 박준성, 박태윤, 신혜숙, 안은경, 임다혜, 이승한, 정은하/ 지도: 홍종호 교수)의 **"안전한 관악캠퍼스 만들기"**가 차지하였다. 캠퍼스 내에서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를 탐구하여 제시하였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다섯 곳을 선정하였으며 치안이나 교통과 관련하여 안전하지 못한 곳의 안전성을 높이고 활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스그래피와 메시지 월을 직접 제작하거나 설치하였으며 지그재그 차선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서울대 어디까지 가 봤니, 학교 내 표지판 설치(Way Finding), 신림동 고시촌 개선안(스누아넥스, SNUAnnex) 등 다른 발표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문제 해결방안들이 풍성했다. 시상식은 옥상정원인 하늘정원에서 교수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관악산을 마주하며 행복한 시간(happy hour)을 가졌다.

수상한 3개 조는 방학 동안 내용을 보강해서 10월에 열리는 환경대학원 개교 40주년 기념 지속가능한 캠퍼스 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캠퍼스 지속가능성 연구"를 수행한 교수들의 연구 결과와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 교수동정

### 인사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지난 4월 5일부터 2년 임기로 서울대학교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AIEES) 3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 교수동정

· **성종상 교수**(환경조경학과, 환경대학원 부원장)는 2013년 4월 19일 순천시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Toward Suncheon, an Eco Sustainable City'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여 "Suncheon Bay Garden Expo 2013: the First Step Toward a Healthy and Happy City"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에 개막에 맞춰 식전행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된 동 심포지엄에서 성 교수는 조충훈 순천시장과 Dr. Doeke Faber AIPH 전 회장, Monica Kuo 대만 문화대학 조경학과장, 김준선 순천대 생명산업과학대학장, P. Teva Raj 싱가포르 녹색도시 생태산업센터국장 등과 함께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순천시의 미래상으로서, 생태도시를 넘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전략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다. 이어 행사 참여자와 순천시 및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의 안내로 정원박람회장을 둘러보고 개막식에도 참여하였다. 또 지난 3월 12일에는 순천시에서 개최한 '정원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토론회'에 참여하여 "Garden Expo as an Agent for Urban Renaissance 도시 재생의 기폭제로서 정원박람회"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고 토론하였다. 지난 2008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성 교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생방송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의 개최 필요성과 의의를 역설하고, 성공적인 개최전략과 사후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해 오고 있다.

또한 성종상 교수는 지난 5월 13일(월) 중국 수도과기발전전략연구원장 방문단을 맞이하여 상호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수도과기발전전략연구원은 중국과학기술부, 중국과학아카데미, 중국 공학아카데미, 그리고 베이징시 인민정부가 합의하여 2011년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공식기구로서, 베이징시를 중국의 혁신개발에 선진기지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녹색성장, 환경정책 경험에 대한 정보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이번 방문에는 리시아오시(李晓西) 수도과기발전전략연구원 원장(북경사범대학교학술위원회 부주임, 중국환경과 발전국제협력위원회위원, 교육부사회과학위원회 위원 겸임)과 장치(张琦) 북경사범대학교 경제와 자원관리 연구원, 당 총비서 등 6명이 동행하였다. 환경대학원에서는 성 교수 외에도 홍중호, 윤순진, 김세훈 교수 등이 함께하여 분야별 관심사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양병이 명예교수**(환경조경학과)는 2월 28일 개최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3년 정기총회에서 『녹색도시만들기』(2011.) 저서의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 **윤순진 교수**(환경계획학과, 환경계획학과 학과장)는 독일 총리실 산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현재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외국인 평가위원단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독일에서는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검토 평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독일이 전환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대안을 제안하는 동료 평가 보고서(Peer Review Report)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제1차 동료 평가 보고서는 2009년에 발간되어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올해 2013년 10월경 제2차 동료 평가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2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외국인 전문가 8인이 초대를 받았는데 윤순진 교수는 유일한 아시아권 출신이다. 그 외 외국인 전문가들의 출신국가는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2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동료평가위원단의 단장은 Björn Stigson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 기업 위원회(World Busines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전 위원장이다.

또한 윤순진 교수는 최근에 발간된 『Future Lab Germany: Invitations for Tomorrow World』란 책의 한 장(chapter)을 집필하였다. 독일 정부는 클라우스 토퍼(Klaus Toepfer) 전 환경부 장관의 75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 책을 기획, 발간하였는데 윤순진 교수를 공동저자의 일원으로 초청하였다. 이 책에서 윤 교수는 “Germany as a Future Lab”이란 제목으로 기고하였는데 독일이 이룬 그간의 기술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성취가 끊임없는 도전과 창의성, 끈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변화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갈망과 성숙한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이도원 교수**(환경계획학과)의 저서 『전통생태와 풍수지리』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순수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이 교수가 담당하는 환경생태학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을 보여주었다.

고동욱(계획학과 30회) 국민대학교 교수는 강원도 인제군 점봉산 숲의 나이테를 분석하고, 주민 인터뷰로 수집한 숲 이용 역사와 비교한 결과를 다룬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내용을 보충하여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1900년대 이전에는 교란이 작았으나 1910년부터 1960년까지 숲은 넓은 지역에서 심하게 교란되었고 다시 1970년대 이후 안정화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시작된 많은 사람들의 거주로 일어난 숲의 이용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Ko, D.W., and D. Lee. 2013. “Dendroecological reconstruction of disturbance dynamics and human legacy in an old-growth hardwood forest in Korea.” *Forest Ecology and Management* 302:43-53

이도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 4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2013년 세계경관생태학회 미국지부 학술대회에서 음나무의 서식지 분포와 유전자 흐름(gene flow)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서식지 연결성이 개체군 간 유전적 차이와 다양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인자임을 밝혔고, 향후 기후변화 대응 음나무 개체군 보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도원 교수 연구팀 강완모 연구원(환경계획학과 박사수료)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Foreign Scholar Travel Award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Kang, W., Minor, E.S., Park, C.-R. and Lee, D. 2013. “Modeling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distribution and gene flow of threatened tree *Kalopanax septemlobus* in South Korea.” *The 2013 US-IALE Annual Symposium (April 14-18)*, Austin, Texas, USA. April 15, 2013.

이도원 교수는 한·중·일 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바다와 산”을 주제로 개최한 제4회 울릉도포럼에서 우리나라 전통마을 경관이 산에서 발원된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장에서 우리나라 옛 우물이 마르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중국의 북경과 북부 초원지대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지하수위가 수십 미터 내려간 사실을 문헌자료에서 확인하였다. 이에 심한 가뭄이 일어날 때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전통사회의 물 관리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Lee, D, and H. Lee. 2013. “Mountains as related to water resources in Korean cultural landscapes.” *a paper presented at the 4th Ullungdo Forum, Ullungdo*, 10-13 June, 2013.

한국의 독특한 지리와 국토사상인 산줄기인식체계의 역사적 발달과정과 환경관리 측면에서의 의미를 검토하기 위해 대한지리학회에서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도원 교수는 전통지식에 나타난 산줄기 특성을 생태학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산줄기 체계의 위계성과 경계·완충 기능이 함께 풍수이론의 산 모양의 구분에서 생태학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이도원, 이현정. 2013. 산줄기 특성의 생태학적 해석. *대한지리학회 심포지엄*. 초청강연. 서울, 6월 22일.

· **이유미 교수**(환경조경학과)는 2013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개최된 미국 조경학회 'CELA(Council of Educators in Landscape Architecture) Annual Conference'에 참석하여 Landscape Planning & Ecology Session에서 "Sea Level Rise Adaptation Strategies: A Case Study of Mokpo, Korea"를 발표하였다. 발표한 내용은 해수면 상승의 디자인적 적응방안을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유형별 특징과 프로세스를 모식도로 표현하고 우리나라 연안도시인 목포를 대상지로 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적응방안을 예상도로 제시하였다. 발표 후 이어진 질의시간에서 우리나라의 해수면 상승 적응형 디자인 연구의 현황에 대한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질문이 이어져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13 CELA Conference는 미국 조경학회의 연구이슈와 연구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과 학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

· **전상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옥상의 공간사회학』(AURI, 2012)을 김미영(환경계획학과 박사과정)과 함께 출간하며 몇 차례 강연과 주제 발표를 하였다. 2013년 4월 5일에는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점으로 읽는 도시·도시인·도시문화"라는 주제로 강연하였으며, 5월 2일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새정부 문화정책 연속토론회'에서 "창조경제와 문화계획"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6월 29일에는 한양대학교 SKK 다문화사업단이 주최하는 콜로키움에서 "편의점, 한국사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또한 전상인 교수는 2013년 6월부터 6개월간 조선일보 '朝鮮칼럼 The Column'의 고정 필진으로 활동한다.

· **홍중호 교수**(환경계획학과)는 중국 황산에서 2013년 2월 20~22일까지 개최된 동아시아환경자원경제학회에서 아래와 같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Hong, J. H. 2013. "The Impact of Oil Price Increase on the Manufacturing GDP in Korea," *3rd Congress of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Hwangshan, China, 2013.2.22.

또한 홍 교수는 김홍균 서강대 교수, 이호생 명지대 교수, 임종수 광운대 교수와 공저로 『환경경제학』(Pearson, 2013.)을 출간하였다. 그밖에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년간 한국재정학회 편집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 석·박사과정

### 정원 가꾸기 행사 및 사진 공모전

지난 4월 3일, 봄을 맞이하여 환경대학원 옥상정원 및 82동 주변 정원 가꾸기 및 정원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환경대학원 교수와 학생, 교직원이 모두 참여한 이번 행사는 3월에 부임하신 김세훈 교수의 기념식수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정원 사진 공모전은 환경조경학과 박상현 학생(석사과정)의 "자연이 그린 그림"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공동 3등으로는 환경조경학과 이연선, 안근철, 이제이 학생과 도시 및 지역계획 전공의 김대진, 교통전공의 박태윤 학생이 입상하였다. 학생들의 다양한 시선이 드러난 사진전은 환경대학원 건물 주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맑은 하늘 아래 5층 하늘정원과 3층 입구 건물 주변에 직접 화초류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기존 정원을 보석하고 재정비하는 일에 구슬땀을 흘리며 한마음으로 환경을 가꾼 유익한 자리였다.



## 스승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2013 환경대학원 스승의 날 행사와 어울림 체육대회가 5월 15일 학생회 주관으로 환경대학원과 관악사 운동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열린 어울림 체육대회는 환경대학원 구성원들 간의 교류와 친목을 다지기 위한 행사로, 환경계획 및 설계 수강생과 전공별 교수님, 재학생, 교직원을 포함하여 약 150여 명이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긴줄넘기, 림보, 왕바튼계주, O/X퀴즈 등 총 8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체육대회는 교통전공이 종합우승, 환경조경, 도시전공이 공동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특히 전공별 석사 1학기생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은 그동안 숨겨왔던 학생들의 끼를 드러내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체육대회를 마치고 낙성대 마포소금구이에서 다 함께 식사하며 마무리한 이번 어울림 체육대회는 환경대학원 타 전공 학생들 간에 교류의 장을 제공하면서 강의실에서만 뵈던 여러 교수님들과 야외에서 함께하며 친밀감을 도모하는 장이 되었다.

## 학생회 활동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옥상 양봉 프로젝트

2013년 4월 3일, 환경대학원 학생회는 양봉부를 설립하고 양봉부장 이진우(환경조경학과 석사과정) 학생을 필두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옥상 양봉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벌이 급속도로 사라지는 환경(CCD : colony collapse disorder)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양봉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대학원의 교육적 취지에 맞게 6층 옥상의 공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도시양봉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옥상의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하여 양봉하는 것은 벌들의 생활권을 보장하며 벌을 중심으로 하는 식물-곤충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봉의 생산물인 꿀,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등의 부산물은 환경대학원 홍보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교내외 나눔의 형식으로 판매하려고 한다.

양봉부는 2013년 5월 22일 벚꽃꿀 15kg이라는 첫 수확의 기쁨을 누렸고 이 첫 수확은 현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님을 비롯하여 서울대학교 전체 단과대에 환경대학원 홍보용으로 배포되었다. 5월 29일 아카시아 꿀을 13kg 채밀하여 동창회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에게 판매하였으며 앞으로의 양봉 수익금은 학생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학생회장 선출

2013년 6월 학생들의 자발적 선거를 통해 환경대학원 학생회장에 환경계획학과 석사과정 이유민 학생이 선출되었다. 이유민 신임 학생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포부에 귀 기울여보자.



저는 2013~2014 환경대학원 학생회장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석사과정 이유민입니다. 6월 12일 개표결과와 총 유권자 172명 중 132명(76.74%)이 투표에 참가하였고 찬성 123표(93.2%), 반대 6표(4.5%)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합니다.

소통은 입보다 귀로 하는 것입니다. 소통하고 여러분과 공감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결여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학우들의 의사에 따라 단합과 친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대학원 내·외의 문화적, 사회적 교류를 통하여 소모임 신설 및 행사 개최를 통하여 학우들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적, 물리적 개선을 위하여 환경대학원 자료실 활성화와 여학생 전용 휴게실 만들고자 합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편의를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대학원의 학업 분위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변화의 길이 쉽지 않더라도 모두 하나 되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환경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점원은 환경대학원이 설립된 이래 4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더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 SGS 29기 수료식



지난 4월 4일(목),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제29기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의 수료식이 있었다. 2012년 9월 12일 출범하여 7개월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참가한 27명 모두 수료하였다. 이번 과정에서는 총 23회에 걸쳐 국토·지역계획, 도시계획·설계, 건축, 조경, 부동산·도시개발·건설, 교통, 환경, 생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시·환경분야의 현안 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6회 Fellow들의 발표 시간을 통해 각 분야에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당면과제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말라카 해협을 둘러싼 흥망성쇠"라는 주제로 3박 5일간 말라카, 페낭 조지타운,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국내 시찰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계룡산을 답사하였다.

29기 과정을 수료한 27명의 Fellow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형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과노상(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 부사장), 김종석(공군기상단 단장), 김준호(한국환경공단 기획조정처장), 김진학(동흥종합건설 대표이사), 김희덕(한국조경건설 부사장), 박경호(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변호사), 박진식(Centios 부사장), 박태홍(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백승진(홈플러스 총괄이사), 송기태(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총재), 신영화(장원조경 상무이사), 양주호(선라이즈케미칼 대표이사), 양희범(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 본부장), 원종호(정림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유영록(김포시청 시장), 유준호(에이그룹인터내셔널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이민래(관악구청 도시관리국 국장), 이상현(코스모전기 대표이사), 이종우(명지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이준혁(유한킴벌리 상무), 임형남(건축사사무소 가온건축 대표), 정창수(월드그린환경연합 호남본부 사무처장), 조용호(DmTC 사장), 조은혜(송보이엔씨건축사무소 이사), 한기준(해양수산부 감사관실 감사관), 황영심(지오북 대표)



## 29기 국내시찰

### 김포시 방문 및 장릉 답사

도시·환경최고위과정에서는 지난해부터 연 1회 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부족해진 친교 시간을 보충하고, 좀 더 다양한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회의 주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반기에는 은평뉴타운 답사를 했고, 후반기에는 3월 15일(금) 김포시청을 방문하여 주요 시정활동을 소개받고 현안에 대한 펠로우 간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의 하나인 장릉(章陵)을 답사하였다. 장릉은 추존 원종과 인현왕후의 능이라 한다. 이 자리에는 이영성 주임교수, 최명철 공동주임교수, 김경민 부주임교수, 전상인 교수와 20여 명의 29기 펠로우가 참석하였다.



### 29기 인왕산 북악산 탐방

29기 자치회는 3월 23일(토)에 인왕산과 북악산을 성곽 길을 걸으며 화합을 다졌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황영심 펠로우(지오북/대표)의 전체적인 해설과 진행, 참석한 펠로우들의 전문성을 살린 3분 해설이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 자리에는 10여 명의 29기 펠로우와 이영성 주임교수가 참석하였다.



## 동문소식

7

### 동창회

지난 5월 31일 제30회 환경대학원 동창회 총회에서 이완영 국회의원이 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여기서 새로 선출된 이완영 동창회장의 인사말과 동창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당부의 말씀을 싣습니다.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제20대 동창회장 이완영입니다.

저는 80년에 입학하여 환경계획학 석사로 졸업, 26회 행정고시를 거쳐 30여 년 중앙부처 관료를 지냈고 경북 칠곡·성주·고령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부족한 제가 회장을 맡는다는 게 큰 고민이었고 망설여졌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동창회장님의 뒤를 이어 보고 싶고, 가고 싶은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대학원 4,000여 동문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들이 환경, 도시계획, 조경 등의 분야에서 선도적이고 사회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심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국적은 바꾸어도 졸업한 학교는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대학원 동문들이 친목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광장이 될 수 있는 동창회가 되려면 동문들이 많이 참석해야 가능합니다. 더불어 「동문찾기」를 적극 펼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참여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동문 여러분!

선진국 진입과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원 재순환,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적응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 조성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학원 시기의 동문수학은 성숙한 인생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한 것과 축적해 온 역량을 우리 동창회를 통해 더욱 승화시키고, 동문 간 친목으로 서로 도와 시너지가 나오도록 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원 동창회”로 만듭시다.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만이 성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저 역시 의정활동에 충실하며 동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동문들의 발전과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 제30회 환경대학원 동창회 총회

제30회 환경대학원 동창회 총회가 지난 5월 31일(금)에 명동의 뱅커스클럽에서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을 비롯하여 김이환(계획 1회), 김병린(계획 2회), 각결호(계획 8회) 동창회 명예회장, 이완영(계획 13회) 신임 동창회장, 김안제 명예교수, 최막중 대학원장, 모교교수 등 약 90여 명이 넘는 동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전의찬(계획 18회) 동창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총회의 1부 순서는 참석자 소개,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의 인사말, 오연천 서울대 총장의 축사, 최막중 원장의 격려사로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총회의 2부는 신임 회장단 출범식으로 꾸며졌다. 회장단 회의를 통해 신임 동창회장으로 추대된 이완영 회장의 소개와 임명장 전달 및 취임사, 그리고 이완영 동창회장의 지도교수이셨던 김안제 명예교수의 덕담이 있었다.

직책	성명	입학년도(기수)	직장/직위
회장	이완영	1980(13)	국회의원
도시	부회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원장
	간사장	김대중	국토연구원/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책임연구원
교통	부회장	배성일	(주)유신 부사장
	간사장	신성일	서울연구원/도시교통연구실/연구위원
환경	부회장	전의찬	세종대학교/환경에너지융합과/교수/일반대학원장
	간사장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환경생태연구실/선임연구위원
조경	부회장	안계동	동심원 조경설계연구소
	간사장	한태호	대림산업주식회사
SGS	부회장	조백일	(주)공간세라믹/대표이사
	간사장	김광호	TLA SEOUL/소장
감사	김희병	1983(16), 1996(2)	(주)어반플레이스/대표
	성종상	1984(17), 1997(8)	환경대학원 부원장

### <2013년 환경대학원 동창회 임원단>

총회 3부(만찬과 소통)의 시작은 김이환 명예회장의 건배 제의로 시작되었고 동문 소개와 환경, 교통, 조경, SGS 동창회의 소모임 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후 2013년 환경대학원의 Vision에 대해 최막중 원장의 발표(2013 환경대학원 비전, "GSES Initiative 2013" 참고)가 있었다. 이어 10월에 있을 환경대학원 40주년 행사에 대해 전상인 기획위원장(환경계획연구소장)의 설명("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참고)도 있었다.

행사의 말미에는 조백일 동창회 부회장(SGS 6기, SGS 회장)이 1,000만 원을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겠다는 깜짝 발표가 있어 최막중 원장을 비롯한 행사장에 있던 모든 동문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이후 전의찬 부회장의 폐회선언을 끝으로 10월에 있을 환경대학원 40주년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음 동창회 모임을 기약하며 본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 ‘동문들이 바라보는 환경대학원’이란 주제로 간담회 개최

5월 29일(수) 환경대학원에서는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40년을 구상하기 위해 “동문들이 바라보는 환경대학원”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는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동문들의 시선을 통해 현재 환경대학원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해결할 방안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문을 대표하여 백운수(계획 11회, 미래E&D 대표), 이광훈(계획 13회, 서울연구원 도시기반연구본부장), 안상욱(조경 16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사업처장) 동문이 자리하였고 환경대학원 교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동문들은 환경대학원의 초창기에는 동문들 간의 네트워크가 강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시계획은 실용 학문으로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함에도 사회에서 느끼기에 환경대학원 졸업생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는 점차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학제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거 성장시대에 사회가 필요로 하던 Generalist의 육성에서 이제는 세분화, 전문화된 인재를 배출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학제 간 소통을 통해 앞으로 융·복합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의 약화와 더불어 동문들 간의 결속력 약화도 문제로 제시되었다. 동문회 참석률이 과거와 비교하여 현저히 낮아졌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창회 활동과 학교소식을 동문에게 좀 더 자주 전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동문 화합의 중심점이 될 수 있도록 환경대학원 교수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정책참여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환경대학원 자체적으로도 좋은 학생을 선발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홍보와 장학금의 확충, 취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MOU 체결, 동문들이 진출해 있는 기관과의 Internship 제도 도입 및 기관 설명회를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었다.

본 간담회를 통해 환경대학원이 이전의 치적을 자랑하고 축하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2013 환경대학원 비전”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 교통관리전공 2013 홈커밍데이

지난 5월 25일 토요일, 교통관리전공에서는 여러 동문들과 재학생 간의 교류와 친목의 시간을 갖기 위해 ‘2013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임강원 명예교수, 김성수 교수, 이영인 교수, 장수은 교수를 포함한 교통전공 동문과 재학생 등 총 50명이 참석하였다. 1부 체육대회에서는 재학생팀과 졸업생팀으로 나누어 피구, 단체줄넘기, 축구 등의 경기를 진행하였다. 저녁에는 낙성대로 자리를 옮겨 친교의 식사 시간과 스승의 날 행사를 가졌다.



## 서울환경포럼 등반대회



서울환경포럼은 매년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토요일 오전 서울환경포럼 회원들과 교수님, 재학생들과 함께 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5월 25일 개최한 이번 등반대회에는 전의찬(계획 18회, 세종대학교 교수)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5명, 재학생 2명, 총 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등반은 오전 10시 환경대학원 정문에서 출발하여 버들골을 지나 연주대로 향했으며, 약 두 시간에 걸친 산행을 끝내고 낙성대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후 인근 카페에서 서울환경포럼 이사진들이 모여 7월에 있을 하계 세미나 관련 회의를 하면서 모든 일정을 마쳤다.

## SGS 동창회 2013 봄 등반대회

SGS 동창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에 '김포시 문수산 등산행사'를 개최하였다. 조익수 등산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SGS 펠로우와 1명의 환경관리전공 동문이 참석하였다. 등산을 마치고 이루어진 친교 시간에 조 회장은 'SGS 등산 모임'을 등산뿐만 아니라 '청산도 슬로우길 걷기', '수원 화성답사', '레일크루즈' 등 좀 더 폭넓고 다양한 문화체험 및 도시·환경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임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더하여 SGS 등산모임의 새로운 이름과 모임에서 함께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펠로우들의 의견을 부탁하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함께하자고 하였다.



## SGS 동창회 골프회 월례회

SGS 동창회 골프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모임을 개최한다. 평균 3팀의 SGS 펠로우가 참석하고 있다. SGS 골프 모임은 SGS 등산 모임과 마찬가지로 환경대학원 동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 서울대 환경대학원 SGS총동창회골프 월례회 안내 >

회 장 이문구 20기 (주) 다짐 대표이사 (011-223-0867)

총 무 김희덕 29기 한국조경건설(주) 부사장 (010-8588-0909)

Tel: 02-539-9266

Fax: 02-539-9265

E-메일 moscow67@naver.com

## 석·박사 과정 동문 동정

### 환경계획학과 동문동정

- **주윤식**(계획 5회) 동문은 버츄얼커뮤니티인 "이동네사람들"(http://edongne.kr)을 개설했다. 근린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주문화를 일구어 갈 참살이 SNS다. 도시와 환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우리 동문들이 각기 사는 곳의 새로운 정주문화 육성을 위해 "이동네사람들"로 더불어 새로운 정주문화운동을 전개하려 한다.
- **한영주**(계획 5회) 도시·계획연구원(KEPSI) 원장은 지난 5월 27일 14:00~18:00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정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서울시정의 평가와 미래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주관하였으며, 6월 3일 15:00~18:00 동일한 장소에서 "매립지 행정구역의 합리적 결정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주최하였다.
- **소진광**(계획 12회) 가천대학교 대외부총장(행정학과 교수)은 지난 2월 21일 과학기술총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제14대)으로 선출되었다.
- **박학목**(계획 13회) 동문은 지난 3월 1일부로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 **이완영**(계획 13회) 국회의원은 지난 5월 31일 서울 중구 벅커스클럽에서 열린 동창회 총회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으로 추대되었다.
- **송동하**(계획 24회) 이앤에이치씨(주) 대표이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사업지원을 받아 개발한 '로드킬 예방을 위한 에코펜스 장치' 개발 사업을 2013년 4월 29일 최종 평가한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은 지리산국립공원에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저감 사업에 시범 설치될 계획이다.
- **김준형**(계획 35회, 계획박사 22회) 동문은 2013년 3월 1일 자로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유향란**(계획박사 22회) 동문은 3월 제1기 걸쳐오션문화예술 CEO 과정 개강식에 내빈 인사로 초대되어 축하하였다. 4월에는 중국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민간교류의 역사와 현황"국제포럼에 참석하였고, 제4차 "Asian Law School Deans' Forum"에서 아시아 각 대학 법대 학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2013년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중국의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5월에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IAIA13에 참석하여 중국 측 참석자들과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와 학생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 **고진수**(계획 37회, 계획박사 25회) 동문은 지난 3월 1일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김 송**(계획 37회)은 지난 5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 **황세원**(계획박사 30회) 동문은 이일(도시설계협동과정 박사수료)과 함께 2013년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43회 Urban Affairs Association Conference'에 참가하여 "Revitalization of Post-Industrial Sites Through Emerging Large Scale Urban Entertainment Center Development: Application of the Special Planning District Regulation"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제조업의 쇠퇴로 남겨진 도시 내 산업이전적지에 대규모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하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지역의 공공성 확보 등 다양한 쟁점을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살펴보고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환경조경학과 동문동정

---

- 최강림(조경 23회, 협동과정조경학 11회) 경성대학교 교수는 지난 5월 8일 자로 경성대학교 교육연구부처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 정수진(조경 28회, 협동과정조경학 20회) 3월 28일에 개원한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이직했고, 지난 4월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으로 선출되었다.
- 권영상(조경 35회) 동문(현 University of Delaware 지리학과 객원 조교수)은 2013년 가을학기부터 University of Memphis 지구과학과(Department of Earth Science)에 테뉴어 트랙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 도시환경최고위과정 동문 동정

- **장태복**(도시환경최고위과정 4기) 작가는 6월 13~17일,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SETEC 제3전시실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사진축전'에 참여하였다.
- **조천복**(도시환경최고위과정 7기) 동문은 한국노총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은퇴한 후 부산에서 문필 활동을 하고 있다. 장편소설 『해교』로 2012년 8월 2일에는 부산문인협회가 시상하는 '한국해양문학상'을 수상했다.
- **유종국**(도시환경최고위과정 9기) 솔로몬산업(주)대표이사는 지난 4월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현재 어린이재단 서울후원회장 재임 중) 또한 지난 4월 5일 (사)벤처기업협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 **안중우**(도시환경최고위과정 9기)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교수는 2013년 2월 15일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2013년 5월 10일에는 특허청 환경·기상 부문 IP전략위원장에 선출되었다.
- **김기숙**(도시환경최고위과정 15기) 동문이 회장으로 있는 (사)자연사랑은 2013년 5월 25일 환경부, 서울시와 함께하는 "한강사랑 자연학교"를 열었다. 학생들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소재 한강물환경연구소를 탐방하며 한강에 서식하는 물고기와 한강이 품고 있는 생물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 **최정윤**(도시환경최고위과정 16기) 동문의 (주)UDI도시디자인그룹은 6월 25일(화)부터 28일(금)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LED EXPO & OLED EXPO 2013"에 UDI LIGHTING 제품들을 출품하였다.
- **연영숙**(도시환경최고위과정 18기) 동문은 2013년부터 세종미협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2013년 10월 3일(목)부터 13일(일)까지 11일간 세종시청 대강당, 정부청사 실내외, 수변무대 등에서 세종국제종합예술제 프로젝트를 주최한다.
- **마승희**(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기) 동문은 일산 호수공원에서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 '2013 고양국제꽃박람회 아름다운 정원'에 "내면의 휴식"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하였다.
- **최상현**(도시환경최고위과정 20기) 동문은 5월 1일 ~ 4일까지 코엑스 A홀에서 진행된 '2013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대한민국여성 발명품박람회'에 "UFO STYLE 항균·탈취 공기청정기"를 출품하였다.
- **박경호**(도시환경최고위과정 29기) 동문은 지난 20년간의 검사직을 마감하고 6월 10일부터 법무법인 광장(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118 한진빌딩본관 18층)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다.

# 2013 도시·환경 최고위과정 30기 모집안내

환경대학원의 도시·환경 최고위과정은 정부, 민간, 시민단체의 중견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 과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도시, 지역, 국토, 교통, 환경, 조경, 도시설계 분야의 지식, 정보, 기술 및 아이디어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정책과 실무에서도 보다 다차원적이고 범지구적인 문제 상황과 해결방법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최고위과정은 학교,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공동학습과 상호계몽 포럼이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추천을 적극 존중하는 1차 특별전형이 7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변의 책임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창회, 선배 펠로우, 교수 추천을 통한 1차 특별전형** 7월 12일(금) 18:00까지
- **2차 일반전형** 8월 9일(금) 18:00까지
- **합격자발표** 8월 20일
- **출범식** 9월 12일 예정 (7개월 과정)
- **지원자격** · 기업 및 공공기관 경영자 및 임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 법조계 및 언론계 인사
  - 시민단체 및 문화예술계 인사
  - 도시·환경 분야 전문가
    - 건축 및 조경설계 사무소 대표자 또는 임원
    - 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환경 엔지니어링 대표자 또는 임원
    - 건설회사 또는 개발회사 대표자 또는 임원
    - 부동산 금융 및 투자회사 대표자 또는 임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 추천 및 자세한 문의

조 교 김 배

전 화 02-880-8525

팩 스 02-882-5831

이 메 일 sgs@snu.ac.kr

홈페이지 <http://gses.snu.ac.kr>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82동 환경대학원 도시·환경최고위과정 행정실 212호

#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환경대학원 개원 40주년을 맞이하여 대학원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이전까지 위탁 형식으로 기부되던 발전기금은 "GSES Initiative 2013" Agenda 항목별로 지정하여 발전기금을 통해 환경대학원의 비전을 실제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발전기금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문 및 잠재적 기부자를 발굴하여 발전기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발전기금을 기탁해주신 분은 다음과 같다.

- 조백일(SGS 6기, 환경대학원 SGS 동창회 회장, 총동창회 부회장, ㈜공간세라믹) **일금 일천만 원**
- 전의찬(환경관리 18회, 총동창회 부회장, 세종대학교) **일금 일백만 원**
- 배장영(환경관리 20회, ㈜오이코스) **일금 삼백만 원**

발전기금을 출현한 동문들을 위해 환경대학원에서 발간하는 이슈 중심의 전문지인 'e-환경논총'의 광고란에 요청이 있을 경우, "동문들의 기업 광고 및 소개"를 실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 및 혜택 안내

발행인 최막중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발행일 2013년 6월 30일

담당교수 이희연 이유미 조경진

학과조교 문미라, 박윤미, 박주현, 오관교, 원세형

도시·환경최고위과정 조교 김 배

학생기자 김현정, 문제희, 양수연, Carlos Silva Roa

E-Design 흑석동작업장

출력물디자인 김현정

2013년 하반기부터 뉴스레터와 e-환경논총의 발간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뉴스레터** | 매년 6월 말, 12월 말 · **e-환경논총** | 매년 9월 말, 3월 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